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0

October 2005

| 권두칼럼 |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

김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경제포커스 |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5. 10

차 례

권두칼럼	3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 김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경제동향	9	요 약
	10	경 기
	17	고 용
	23	금 융
	27	부동산
경제포커스	35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43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부록	57	통계표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jokim@keei.re.kr

앞으로 미래의 정부정책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수급 균형정책과 상향식 참여형 정책 그리고 중앙-지방 연계형 정책과 통합형 수요관리 등 개방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이 요청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석유중심 공급시스템의 다원화와 부문별 수요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세계경제는 70년대 고유가시기와 80-90년대 저유가시기를 거쳐 비야흐로 21C 신고유가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73년 1차 석유위기 때에는 중동전으로 아랍 산유국의 감산조치가 이어져 3\$/b 하던 유가가 11\$/b로 3배 이상 뛰었고, 79년 2차 석유위기 때에는 이란 혁명으로 인한 수출중단으로 OPEC이 가격인상을 시도해서 13\$/b 하던 유가가 42\$/b로 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동 산유국들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그런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86년부터 99년까지 긴 저유가시대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02년 이후부

터 다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석유시장의 지배 역사를 살펴보면 73년 이전에는 석유 메이저들이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1-2차 석유위기를 통해 86년까지 OPEC이 국제 석유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86년 이후에는 석유소비감소, OPEC의 시장지배력의 감소 및 러시아 등 非 OPEC의 석유공급 증가로 인해 저유가 시기가 도래되고 그 시기는 1999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2000년 유가밴드제 실시 이후 OPEC 시장지배력이 다시 회복되고 석유수급 불균형이 생겨나자 2002년 이후부터 유가는 2005년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신 고유가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2004년 평균 유가 33.74\$/b하던 것이 2005년 9월1일에는 무려 76%나 증가한 59.45\$/b를 기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과거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는 세계 석유수급 여건의 악화다. 산유국의 석유공급 능력 제약과 BRICs의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수급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10여년간은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석유공급부문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OPEC 잉여생산능력을 보면 2003년 300~350만b/d였던 것이 2005년 현재 100~150만b/d로 줄고 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중동정세다. 이라크의 내전위기, 이란의 핵문제 등 중동정세 불안 등도 고유가를 부추기는데 한 몫 거두고 있다. 세번째는 국제투기세력의 개입이다. 세계적 저금리 현상에 따라 국제투기자금이 석유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국내외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1세기 첫 오일 쇼크를 촉발했다.”면서 “유가가 100달러에 달할

것 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 무리한 전망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의 유가상승 원인으로 원유 공급능력 및 정제능력 부족을 꼽았다. 또 유가를 끌어올릴 돌발 변수로 ▲이라크 석유산업에 대한 공격(발생가능성 50%) ▲나이지리아 석유 노동자들의 소동(30%) ▲사우디아라비아내 테러(10%) 등 9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에너지연구소 빈센트 라우어만은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유가 세 자릿수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석유협회 존 펠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우리는 이제 전인미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평균유가 33.74\$/b(두바이유)를 기준으로 2005년 평균 유가를 50.55\$/b로 가정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은 0.83%p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8.4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유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두바이유 최고가격(59.45\$/b)을 2000년 기준 실질유가로 바꾸어 놓고 보면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2차 Oil Shock(85.98\$/b) 때 보다는 높지 않고, 그 동안 각국의 꾸준한 효율 개선 등으로 최근 고유가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우리 경제에 악재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 의미에서 우

리는 지금의 고유가상황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모우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기회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해외진출 및 우리경제의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oil money가 풍부해진 중동과의 FTA 조속 체결로 수출건설 및 플랜트 확대를 통해 제2의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 수출실적이 2004년 110억불이었고 금년에는 1~6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53억불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둘째, 고유가로 상대적 경제성이 확보되고 비용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유가가 40~50\$를 유지할 경우 캐나다의 Oil Sand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산유국 및 BRICs의 석유화학 철강산업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중화학공업의 고도화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원료조달이 용이한 산유국 석유산업과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하고 BRICs의 중화학 공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 소홀했던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에 대한 관심제고로 관련 투자도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로 정부는 금년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자금으로 450억원과 고효율기기 보급사업으로 179억원이 5월중에 전액 소진되어 산은자금 2천억원을 추가로 긴

급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절약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로 신성장기회가 확대 될 것도 충분히 짐작된다. ESCO, 열병합발전용 고성능 보일러개발, 가전기기에너지 효율기술 등은 물론이고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에너지·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 상황은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장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가급등에 대한 가계의식조사(2005,4월)에 의하면 자가용 보유가구의 40.6%가 유가상승으로 운행을 감소했다는 보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유가행진은 이번만 유일하게 있는 현 대판 돌발사고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의 1, 2차 오일쇼크나 지금의 고유가행진에 있어서 공통점은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전자가 단기간의 유가 급상승으로 끝난데 반하여 후자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 또한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즉 과거 정부정책의 특징이 공급중심의 비상시 위기 대응정책과 하향식 단힌 정책, 그리고 중앙집권형 정책과 원별 독립적 수요관리 등 폐쇄형 에너지시스템이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정부정책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수급 균형정책과 상향식 참여형 정책 그리고 중앙-지방 연계형 정책과 통합형 수요관리 등 개방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이 요청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석유중심 공급시스템의 다원화와 부문별 수요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어쨌든 유가 고공행진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남아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의 체질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때 금모우기 운동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반만년 우리의 역사를 지켜온 한국인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를 단순한 위기로 본다면 한 숨만 쉴 뿐이다. 그러나 근검절약을 모토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민족에게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움cm린 어깨를 활짝 펴고 신고유가 시대를 향해 덩덤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해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SDI**